

상처와 파편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는가

‘파편의 파편: 박치호·정광희’ 전, 4월 5일까지 ACC 복합전시6관



정광희 작가의 작품.

부서지거나 깨어진 조각을 ‘파편(破片)’이라 한다. 사전적 의미의 파편은 물리적인 손상 등을 함의한다. 일상에서 파편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려질 운명에 처해진다. 하지만 예술의 관점에서 파편은 무궁무진한 영감의 모티브이자 창작의 재료로 작용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 복합전시6관에서 11일 개막해 오는 4월 5일까지 펼쳐지는 ‘파편의 파편: 박치호·정광희’ 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파편’이라는 상처와 깨어짐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고 가치를 획득하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 이번 전시는 ‘ACC 지역협력협의회’ 추천으로 진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박치호 작가의 전시실에 들어서면 인간의 삶, 특히 인간의 신체가 내재하고 있는 상흔의 흔적을 사유하게 된다. 수목의 변질 기법을 매개로 내면의 상흔을 탐색해 온 작자의 창작의 지향을 가능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박치호 작가.

작품 ‘floating’은 한쪽 팔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몸을 초점화했다. 부유하는, 떠다니는 뜻을 담고 있는 ‘floating’은 안주하지 못하는 삶을 상징한다. 작가의 눈에 비친 남자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다. 파편화된 시간, 세월에 집윤된 인생을 작가는 강렬하면서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전시실 벽면에 부착된 ‘산다는 것 상처 위에 상처가 남고, 그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일. 살아있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들, 나는 이 상처 덩어리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작가의 고백은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박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 단초는 ‘기억’과 ‘망각’이다. 인간은 상처를 통해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고 새로운 상처가 덧입히며 한 세월을 보낸다.

박 작가는 “망각도 삶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기억과 망각은 서로 맞물려 있다”며 “망각을 통해 기억도 한다. 망각에는 우리 지역의 상흔 광주 5·18도 여순항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전시에서는 ‘몸의 소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시각을 확장해 자연을 담은 형태의 작품도 선보인다”고 덧붙였다.

정광희 작가는 달항아리 ‘파편’들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온전하지 않는 조각’이 어떻게 생명력을 획득하고 생명성을 발하는지 보여준다. 깨진 조각들은 상처 입은 존재를 은유한다.

남도 수목의 장을 의미있게 구현하기 위해 진력

해온 그는 ‘나는 어디로 변질까’라는 화두를 붙잡고 작품 활동을 해왔다. 변질의 의미,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 스스로를 깬다는 것의 의미 등을 그동안 작품에 투사했다.

정 작가는 “변질은 물성의 ‘변질다’라는 의미 외에도 사회학적 관점의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변질간다는 의미도 함의한다”며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질까, 라는 고민은 창작의 주요 동인이다”고 언급했다.

‘파죽전(破則全)’의 작품은 깨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준다. 부서짐은 완전히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이다.

정 작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는 사람은 어디서든 주인공이다. 나는 파편이고 우리는 주인공이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화된 틀을 깬으로써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시 입구에 놓인 ‘질문 카드’는 작품 속 파편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투영해볼 수 있게 한다.

한편 김상욱 전당장은 “두 작가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키워드는 ‘파편’이라며 “오늘날 파편과 균열이 일상화된 삶에서 관람객들이 저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정광희 작가.

광주대 ‘의향 남구’ 전 27일까지

포충사, 김덕령시비, 이순신시비, 경찰충훈탑, 송일학교 옛터, 광주제중원, 양림교회 옛터, 오원기념각, 3·1만세운동길, 조아라기념관...

위에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의향 남구’에 소재한다는 점이다. 광주 남구는 호국, 개화, 독립, 민주와 연관된 상징적 공간들이 다수 자리한다.

의향 남구에 있는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는 오는 27일까지 교내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의향(義香) 물씬~의향(義鄉) 남구’ 전을 연다. 주제는 의로운 정신은 곧 의로운 향기를 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지역이 상정하는 지향점과 가치를 두루 포괄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52개의 판넬로 제작해 누구나 손쉽게 관람이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 외에도 수피야여학교, 광주공원 5·18 사적지, 양림교회 등도 포함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송이가 주렁주렁...자작나무숲으로 오세요

박영하 초대전, 24일~3월 7일 송정작은미술관

그 자작나무 숲에서 쉬어가고 싶다. 박영하 화가가 그린 자작나무 숲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연분홍, 연노랑, 연두색의 꽃잎과 나뭇잎이 우거진 자작나무 숲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심을 선사한다.

송정작은미술관에서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는 ‘꽃을 피우는 자작나무’ 전.

흔히 자작나무는 철학자의 나무라 불린다. 눈 덮인 비탈진 산하에 의연하게 선 자작나무를 상상하기 십상이다. 추운 겨울 은백색으로 빛나는 자작나무는 인내와 사유, 예술 등과 연계된다.

그러나 박 작가의 자작나무는 ‘숨’, ‘쉼’, ‘숲’의 이미지를 발현한다. 눈에 보이는 자작나무가 아닌 심상에서 구현한 상상의 나무다. 꽃이 피어 있고 아늑하며 새와 고양이가 어우러진다.

‘꽃을 피우는 자작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환한 기운이 전해진다. 꽃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마

치 꽃들이 불을 밝힌 듯한 자작나무 아래 토끼 가족들이 오순도순 휴식을 즐기고 있다. 꽃잎으로 물든 지면은 푸른 풀들과 나뭇가지를 꽃잎들로 환한 풍경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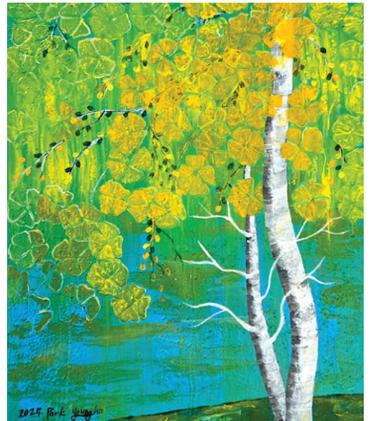
작가는 자연이라는 형상을 빌려 감정과 기억을 색으로 풀어냈다. 반복되는 줄기와 겹겹의 색은 시간의 흔적이자 마음의 결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구성과 추상의 조화다.

그는 자작나무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겹의 물감을 덧입히고 굵히는 기법을 활용했다. 아크릴 물감과 혼합재료가 흘러 내리면 다시 덧입혔고, 나이프를 표면을 긁어냈다. 바탕에 중점을 주고 그 위에 자작나무를 살려낸 것이다.

박 작가는 “자작나무는 다시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색의 나무다. 옛날에는 너무 깨끗한 나무여서 결혼할 때 혼서지에도 많이 이용했다고 전해진다”며 “저는 현실의 자작나무가 아



‘꽃을 피우는 자작나무’



‘숲이 숨을 고르면’

닌 희망의 나무로 확장 시키고 싶었다. 상처위에 꽃을 피우기 위해, 흰 여백위에 희망을 그리기 위해 오늘도 자작나무를 그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작가는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2025년 순천미술대전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장덕도서관갤러리 전 등 개인전, 현대작가7인 교류전 등 단체전, 일본동경정추회원전 등 국제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 이후에는 3월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1층에서 전시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아트 청년 창작자 육성

연 900만원씩 3천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개 시도·광역문화재단과 함께 다음 달 3~31일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천명(수도권·비수도권 각 1500명)에게 연 900만원씩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했다.

예술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어등산 올리는 풍물 가락...광산농악 대보름굿

3월 1일 광산농악전수교육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어등산 자락에 다시 풍물 가락이 울린다. 광주시 무형유산인 광산농악이 지실마을에서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대보름굿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사)광산농악보존회는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광산구 산정동 광산농악전수교육관에서 ‘무형유산과 함께하는 어등산 지실마을 대보름굿’을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전승돼 온 정월대보름 의례를 재현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곳은 마을 입구에서 걸림을 허락받는 통과의례인 문굿으로 문을 연다. 이어 어등산 당산 앞에서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샘물을 통해 맑은 물과 무병장수를 빈다.

마당밭이에서는 남도 특유의 소리로 성주풀이와 액막이 등을 선보이며 집집마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전통 의례를 이어간다. 마지막에는 판굿으로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흥을 나누며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부럼 나눔과 소원지 쓰기, 민속놀이 체험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한석중 광산농악보존회 사무국장은 “대보름굿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해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던 소중한 전통”이라며 “무형유산인 광산농악을 통해 잊혀가는 세시풍속을 시민들과 나누고, 전통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닌해 광산농악전수교육관에서 열린 광산농악 대보름굿의 모습.

〈광산농악보존회 제공〉

한편 1990년 설립된 광산농악보존회는 광주지역 농악의 맥을 잇고 전승하는 단체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 등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활성

화에 기여해 왔다.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을 거점으로 전수교육과 공연, 교류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